

A watercolor illustration of a coastal town. In the foreground, a yellow beach umbrella is partially visible on the left. Below it, a dense cluster of buildings with various roof colors (grey, brown, blue, green) is drawn in a sketchy, hand-drawn style. The background is dominated by a large, textured blue wash representing the sea or sky, with some white circular highlights. The overall style is soft and artistic.

복현라작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다

복현타작(他作) :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남기다

복현타작 3

우리마을 이야기

소중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복현1동 주민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곳에서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순서

- 010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다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최서현 팀장
- 014 골목 곳곳에 스며있는 그들의 숨결을 느끼다
아동문학가 권영세
- 026 담벼락에 낙서 한 줄
소리꾼 오영지
- 032 47-5번지 담집
이순자 할머니
- 052 복현동 '세월'의 재개발
한영자 할머니
- 071 사랑하는 그대에게
손삼익 · 이말순 부부
- 094 복현동의 봄
정화자 할머니
- 110 피란민촌 스케치
복현타작 수강생 전미희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다

최서현 팀장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복현타작(他作) 사진아카데미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만들다!”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만들다!’

라는 주제로 2020년 처음 진행되었다.

복현동 72번지! 만디! 복현동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피란민촌.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 할

그 곳의 삶을 주민이 직접 사진으로 기억하고 글로 기록하면서

사라져갈 피란민촌의 삶을 담아보는 작업이다.

복현타작(他作) I·II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피란민촌을
글과 사진으로 남겼다면,

2022년 복현타작(他作)III는 비록 좁고 불편한 집이었지만

수십년 손때 묻고 정이 든 집을 떠나

잠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주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심정과 이곳에서만 담을 수 있는 인생이야기를

인터뷰와 영상 그리고 책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피란민촌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그림이다!

70여 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오신 어르신들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여정(旅程)을 고스란히 새긴 형형색색의 벽과
긴 세월동안 쌓아 온 정으로 퇴운 골목이
하나 둘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으며 시간을 붙잡고 있는 곳이다.
별 좋은 날 골목 안을 걷다보면 담 너머 어르신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된장찌개 냄새가 새어 나오고 옥상의 빨래가 이웃집 담을 넘어 다니며
하루하루 정을 나누는 곳에 시간도 제 갈 길을 못가고 안락함에
하염없이 머물러 버린 곳이랄까?



인터뷰를 동행하면서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얘기에
눈물을 흘치고 때로는 크게 웃기도 하였다.
이 곳 72번지로 이주해서 새로운 등지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고된 날을 보냈을까?

그 분들이 보낸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리고 예쁘게 담아드리고 싶었다.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다.
세월 지나 자녀들이 이 보따리를 풀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 여겨주길 바랄뿐이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건 또 다른 누군가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과제 일 것입니다!’**

이 귀한 작업을 3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동행해 준
대구예술로(路) 참여 작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살아온 터전은 사라지지만 새로이 탈바꿈 할 이곳에서
다시금 어르신들을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최서현 -

골목 곳곳에 스며있는 그들의 숨결을 느끼다

권영세
아동문학가





고불고불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면 갈수록 낯 선 길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계속 거기가 거기
종일 골목에 갇혀 맴돈다.

앞을 가로막는 담벼락
뒤돌아서서 오던 길 다시 걷는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번도 길 잃지 않고
집을 찾아갔다는
미로 같은 골목

- 권영세, 「미로 같은 골목」

고불고불한 골목을 누빈다. 혹시나 또 다른 무언가 느껴보지 못한 그들의 숨결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을 잔뜩 가슴에 품고 이리저리 살핀다. 잠시 골몰하다 보니 막힌 골목이 내 앞길을 막는다. 낮은 대문 앞 좌우에는 크고 작은 플라스틱 양동이가 놓여 있다. 며칠 전 내린 빗물이 가득 담겨 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 집 담장 위에 길게 줄기를 뺐은 호박 줄기가 늘어져 있다. 한낮인데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 적막하다. 간혹 길고양이 몇 마리가 걸눈질하며 나를 피해 어슬렁거리며 피한다.

이곳은 필자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대구문화재단 예술인파견사업-[예술로(路) 대구] 참여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복현1동 일명 피란민촌이다. 예전에는 100여 가구가 정겨운 이웃으로 살던 이곳에는 현재 20여 가구만 남아 있다고 한다. 이제는 많은 가구들이 이주해 가고 대문은 열쇠가 굳게 채워져 있다. 그나마 아직 남아있는 가구들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한낮인데도 적막한 마을의 골목 군데군데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는 보는 내 마음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 수년 전만 해도 문을 열면 앞집과 옆집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웃들이 가깝게 모여 살던 정겨운 마을이지 않았던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복현동’의 지명유래를 살펴보았다. 이곳 복현동은 ‘견훤덤’, ‘복현덤’, ‘복현암’, ‘복현리’, ‘복흥동’ 등의 명칭으로 불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견훤덤’은 927년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에 침입하여 경순왕을 왕으로 세우고 돌아가는 길에 고려의 태조 왕건과 싸워 고려군을 무찌른 곳이라 하여 불리어졌고, 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흥동’의 명칭이 유래하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의 지명유래에는 ‘복현동’은 이곳에 ‘복현암’이란 바위가 있는데서 유래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복현암리’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덧붙여 ‘복현암’이란 어진 사람[賢者]이 숨어 살던 바위라는 의미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문화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대구] 협업 기관으로 선정된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예술인들과의 협업 대상 지역은 일명 ‘피란민촌’으로 불리어지는 곳이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행정동인 복현1동에 속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마을의 북동쪽에 경진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서쪽에는 경북대학교가 인접하여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경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자취방을 임대하는 원룸 건물들이 들어서고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의 신

축 건물이 지어져 마을 주변 경관이 크게 변화되었다. 하지만 원룸 건물들과 상가 건물들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피란민촌은 골목 안으로 가려졌으며, 50여년이 넘는 노후 주택들은 주변 건물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복현1동 피란민촌의 형성 배경을 알아 보았다. 이 지역이 ‘피란민촌’이라는 명칭이 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5년부터라고 한다. 한국전쟁 직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피란민들은 대구 변두리에 위치한 하천부지나 고지대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때 신천 강변에 모여 살던 피란민들은 대구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신암1동, 신암4동에 이주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복현1동으로 집단이주하여 ‘피란민촌’이라는 명칭의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복현동 72번지’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 명칭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게 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지역을 대구시 영세민 집단촌으로 규정하고 ‘복현지구’로 범주화한 후에 ‘북구 복현동 72번지 일대’로 표기하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복현1동 피란민촌의 토지는 대구시 소유지로서 지번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각 주택마다 지번이 할당되지 못하고 하나의 행정 구역인 ‘복현동 72번지’로 통합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명칭은 2014년 도로명 주소가 새로 시행되면서 사라졌다. 현재는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23길, 경대로19길, 경대로서19길의 도로를 중심으로 각 주택별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주소지가 구분되고 있다.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19년 1월 1일 복현1동 피란민촌 일원에 설치되어 2021년까지 3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다시 2022년까지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2년간 예술인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예술로(路) 대구] 참여 기관 신청 당시 예술인들과의 협업 내용은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될 ‘피란민촌 복잡소 전시관’의 기록물 생성 및 저장을 위한 주민 참여 기록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인 <복현타작(他作) -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만들다>는 2022년까지 예술로 팀에 의해 지속되었다.



2021년 협업을 위한 인적 구성으로 센터 측에서는 김은운 센터장, 담당자 최서현 팀장 및 전체 팀원, 파견예술인 측은 리더예술인 전일환(음악), 참여예술인 권영세(문학), 김인철(문학), 이승희(미술), 현숙경(연예) 등이었다. 5명의 예술인들은 6개월간 센터와 연계한 협업을 해나가면서 리더예술인이 제작에 직접 참여한 연극을 보고, 참여예술인의 미술전시회를 관람하며 식당과 카페에서 밥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밤늦은 시간도 아랑곳없이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나누었다. 그렇게 한해의 개별·협업 활동 기간을 끝내면서 [예술로(路) 대구] 복현1동 팀은 다음과 같은 결과물들을 남겼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복현타작’이다. 2021년 [예술로(路) 대구] 활동 이전부터 영상감독 현숙경 작가가 진행해 온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다. 피란민촌 주민들이 직접 그들의 시선으로 마을 모습을 사진에 담는 기록물 제작을 위해 현숙경 작가가 사진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 활동의 결과물로서 2021년 12월, 최서현 진행, 현숙경 기획·편집 『복현타작-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다』(올타쿠나 펴냄)가 만들어졌다. 이 책에는 함께 참여한 열 두 사람의 복현타작 식구들에 의해 피란민촌의 현재 모습이 사진과 글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필자의 개별 활동 결과물인 연작 동시 ‘골목지킴이 자귀나무’ 등 4편도 실려 있다. 동시 ‘골목지킴이 자귀나무’를 옮겨본다.

우리 할아버지 어릴 적 심었다는
아기자귀나무 세월을 먹고 흙쩍 자라
이제 할아버지나무가 되었네.
쭉쭉 뻗은 가지마다 무성한 잎사귀 하늘 덮어
한여름 땀별 가리는 그늘이 되었고
세찬 소나기 쏟아질 땐
빗줄기 막아주는 커다란 우산이 되었지.
나무 아래 올망졸망 모여앉아
공기놀이 하던 아이들도 성큼 자라
모두 제 갈길 가고 없는 골목에
자귀나무 덩그러니 혼자 서 있네.
이제는 바람이 잠깐 나뭇잎 흔들다 가고
저녁 어스름 집으로 돌아가던 새들
나뭇가지에 모여 앉아 재잘거리는 소리 들으며
자귀나무 골목에 혼자 서 있네.

- 권영세, 「골목지킴이 자귀나무」 전문



다음으로는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복현1동 어울림텃밭 마을 쉼터 벽화 조성 작업이다. 이 협업은 텃밭 경험이 있는 이승희 작가가 주도하여 센터와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텃밭 가꾸기, 벽화 조성 작업을 했다. 벽화의 한 부분에는 필자가 창작한 ‘난 네가 좋아’라는 동시를 직접 쓴 글씨의 본을 떠서 써 넣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시이다.



난 네가 좋아

권영세

내 품에 살포시 내려앉은
새 생명의 속삭임

“난 네가 좋아!”

가슴 뛰게 하는
바로 그 말

그 말이 듣고 싶어
나는 텃밭이 되었어

내 품에 살포시 내려앉은
새 생명의 속삭임

“난 네가 좋아!”

가슴 뛰게 하는
바로 그 말

그 말이 듣고 싶어
나는 텃밭이 되었어.

- 권영세, 「난 네가 좋아」 전문

2021년 [예술로(路) 대구] 협업 활동 중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복잡소>에 전시할 기록물인 영상물 제작이다. 리더 및 참여 예술인 모두가 참여했지만, 특히 현숙경 작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이승희 작가는 영상과 편집에 적극 참여하여 다큐멘터리 영상물「라스트랜드」를 제작했다. 이 영상물은 피란민촌의 현재 모습과 남아 있는 어르신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장차 이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현재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을 때 영상으로나마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값진 기록물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필자의 개별 활동이다. 장차 사라질 피란민촌 마을의 모습을 동시로 창작하는 일이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없을, 특징적이면서 전통적인 현재의 마을 모습을 연작 동시로 남기는 작업이다. 다행히 이곳은 나의 10대 후반 학창과 문청 시절 살았던 대구시 남구 대명시장 뒤쪽의 언덕바지 마을과 흡사했다. 그 때의 추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끌렸는지도 모른다. 마을 곳곳의 골목을 몇 번이나 돌아보면서 50여 개의 소재를 발굴했다. 연작시 형태로 쓰고 있는 이 작업은 2021년 [예술로(路) 대구] 활동 마감 달인 10월 말까지 30여 편을 창작하였다.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예술로 활

동이 끝나더라도 시집 한 권 분량의 작품을 써 모아 단행본으로 묶어냈으면 하는 소망을 갖기도 했다.

처음으로 참여한 [2021년 예술로(路) 대구] 참여 예술인 신청 때를 떠올려 본다. 2021년 3월 초,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보는 순간 꼭 신청해야겠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다. 2015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한 [예술인 파견지원 파견예술인 모집]에서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었지만, 최종 면접심사에서 떨어졌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때는 사실 그 사업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1980년 시와 동시로 문단에 등단하였지만 교직이라는 공식사회에 갇혀 지낸 관계로 내가 하고 싶은 문학 활동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공식 퇴직 후에는 문학을 바탕으로 예술 활동을 폭넓게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다.

2021년 [예술로(路) 대구]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면접 심의하는 날, 면접관이 나에게 “리더예술인과는 연령차가 많은데 괜찮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나는 주저 없이 “저는 동심(童心)을 바탕으로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젊은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공감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참여예술인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활동 기간 동안 매월 수차례 타 분야의 예술인들과 만나 함께 설정한 주제에 대한 협업 활동, 그리고 각자 전문 분야의 예술 활동 소개와 아울러 좋은 정보 공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활동 기간 내내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넘쳤다. 6개월간의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나의 주요 예술 분야인 문학 활동의 폭을 한층 더 넓히는 한편, 문학에 대한 열정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예술로 대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리더 및 참여예술인들과 대화중에 내년에도 함께 복현1동 피란민촌에서 예술로 활동을 계속 하자는 말이 씨가 되어 2022년에도 현실이 되었다.



2022년 3월초, [예술로(路) 대구] 예술인 모집 공고가 나오자마자 다시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2021년의 경험을 살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 서둘러 사업 참여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하여 신청한 결과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고, 2차 면접심사에서 참여예술인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협업 희망 기업·기관 신청은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한 곳만 했는데 다행히 매칭이 되었다.

2022년에 함께한 예술인은 리더예술인에 현숙경(영상), 참여예술인에는 박재현(영화), 오영지(국악), 이승희(미술), 필자(문학) 등 5명이다. 2022년에는 새로 만나게 된 박재현 영화감독과 오영지 국악인이 함께하게 되어 또 다른 예술 장르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0월 현재, 활동이 이제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있다. 아직은 미완의 과정이지만 그동안 활동해 온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올해도 리더 및 참여예술인들의 만남이 매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함께 공연을 보고, 전시회를 관람하고,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예술 활동과 예술 교육 등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북현1동 팀의 리더인 현숙경 영상감독은 예술팀의 전체적인 운영과 함께 개인적인 영상 관련 작업과 협업으로 피란민촌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영지 국악인은 개인 공연 및 판소리 교육 활동과 필자의 동시에 곡을 붙인 국악동요 작곡을 하여 음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승희 작가는 개인 미술 작업과 함께 필자의 동시를 그림으로 그려 책에 수록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박재현 영화감독은 개인 영상작업 등과 함께 북

현1동 피란민촌 모습의 영상 작업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필자의 경우는 개별 예술 활동으로 피란민촌 연작동시 <골목>을 계속 창작하고 있고, 지난 7월부터 대구문학관에서 <권영세 동시작가 서재>를 3개월 동안 전시하고, 초·중학생 대상 국어국립원의 <청소년언어문화프로그램> 수업과 동시창작 수업, 청탁원고 집필, 각종 문학회 활동 참여, 행사 기획 및 심사, 강연 준비 등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개별 예술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작동시 <골목> 동시창작도 계속하고 있다.

이제 10월 말이면 북현1동 예술팀의 [2022 예술로(路) 대구]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장차 북작소에 전시될 피란민촌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또 하나의 소중한 값진 기록물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리고 또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북현1동 피란민촌을 거쳐 간 이들과 지금도 현장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의 숨결을 계속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참고 문헌]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2020. 『북현1동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 인문사회분야 조사연구 보고서』
- 2020. 12. 『북현타작(他作) I - 우리 마을 사진첩』
- 2021. 12. 『북현타작(他作) II -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다』

담벼락에 낙서 한 줄

오영지
소리꾼



제일 처음 제자한테
‘담벼락에 낙서 한 줄’
악보를 보여줬어요.

5학년 학생인데
“선생님 이건 슬픈 노래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랬더니
“가사도 그렇고, 선율도 그렇고,
슬픈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떠나간 그 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그 와중에도 이렇게
희망을 볼 수 있는 노래를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의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벼락에 낙서 한 줄

작시 권영세

작곡 오영지

♩ = 52
서정적이게

이 재 나 저 재 나 쓰러질 듯 넘어칠 듯 간 신히선담벼락에 낙서한 줄

3
순둥아 나 정말 니가 디기 좋데이 우리 예쁜아 감아지 아네 친구야

5
오랜 세월 무피 맞아 빛이 바래도 그 말 그 말 속

7
그 마음은 그 마음은 그 대 보겠지

9
지금 은 불 불이 해 어저살 아도 가 숨 두근대 틈 들 뜬 그 마음

11
담벼락에 쓸쓸히 남 아 있네 낙서-에-소롯이 남 앓-네

13
담벼락에 쓸쓸히 남 아 있네 낙서-에-소롯이 남 앓-네



옥상 텃밭에는

작사 권영세

작곡 오영지

♩ = 120
경쾌하게

옥 상 텃 밭 에 는 상 주 가 자 라 고

3 옥 상 텃 밭 에 는 다 옥 이 자 라 고

5 옥 상 텃 밭 에 는 쫓 갓 도 자 라 고

7 옥 상 텃 밭 에 는 방 울 방 울 토 마 토 가

9 조 롱 조 롱 열 렸 는 데 먹 어 줄 입 이 없

11 네 _____ 방 울 방 울 토 마 토 가

13 조 롱 조 롱 열 렸 는 데 먹 어 줄 입 이 없

15 네 _____





47-5번지 담집

이순자 할머니



“한 20년 넘나? 199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 됐지요.”

이제는 기억에서 가물가물하다. 손가락으로 꼽아도 한참을 꼽아야 나오는 내 나이. 나도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할매’ 중에 ‘할매’다. 아들내외와 손주들이 와야 시끌벅적한 집에 오랜만에 낯선 손님 너댓이 찾아왔다. 내가 살아온 동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며 찾아온 젊은이들이다. 남들처럼 살아온 내 평범한 이야기가 무에 그리 궁금한지 손주 또래인 청년들이 이것저것 참 많이도 물어본다. 늙은이의 이 평범한 기억이 쓸모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즐겁다.

“혹시 옛날 집 주소 기억하세요?”

“모르겠다. 잊어버렸다. 경대로 19길 47-5번지인가?”

20년. 딱 20년쯤 됐을 거다. 내 고향은 아니지만 이웃과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대한 시간이 남아 있는 곳. 고향도 아니고 다 늙어 등지를 튼 동네. 주소는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동네 이름은 잊을 수 없다. 복현동. 복현동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내 나이에 묻혀 세월이 됐다. 지금도 그 골목이, 우리 집이 눈에 선하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되어 여기로 이사 오기 전까지 내가 살았던 동네 복현동. 나는 그곳에서 강산이 두 번 변할 때까지 있었다.



“그 집을 왜 샀냐하면 노인을 데리고 방을 얻으러 댕기니까
노인 돌아가실까 싶어 가지고 방을 안 주는 기라요.
그래 할 수 없어가 그 집을, 방 두 칸짜리를 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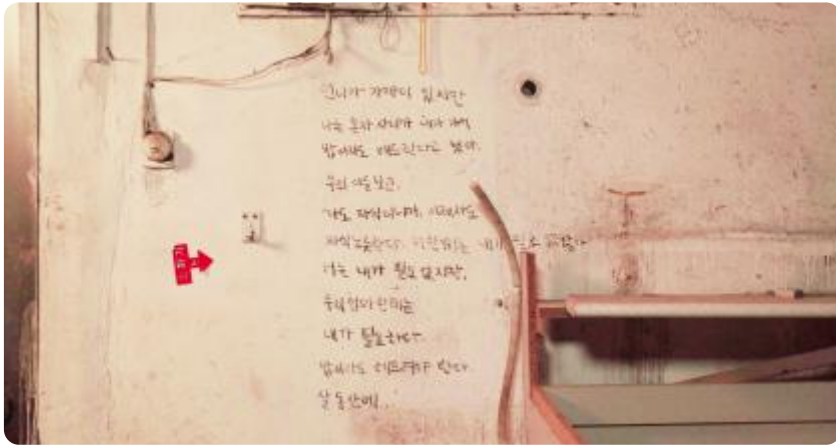
1997년 하면 우리 세대는 모두 어려웠던 나라 살림을 떠올릴 거다. 갑작스럽게 터진 IMF는 세상 잘 나가던 대기업도 망하게 하고 탄탄한 직장도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어려운 시절. 세상시절은 그리 추웠지만 내가 떠올린 1997년의 세상은 참 따뜻했다. 그때 나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 있었다. 이제 별어먹고 살 걱정 없던 60대 딸과 90대 어머니. 젊어도 늙어도 어머니의 손만 있으면 세상 더 없이 든든한 나였다. 나는 그 손을 잡고 복현동을 찾았다. 언니의 집과도 가깝고 나도 한 번씩 들르기 좋은 곳. 거기가 복현동이었다. 젊은 시절 내 손을 잡고 이리 저리 살림살이를 장만해 주시던 어머니. 반대로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사실 집을 보러 다녔다.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각난다. 보양계 곱던 내 손에도 어느덧 주름이 앉았고 단단하던 어머니 손에도 주름이 깊게 앉았던 때. 나는 구순 넘은 노모의 손을 꼭 붙잡고 복현동의 이 집 저 집 살 곳을 알아봤다. 물건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살 집 찾는 건 그 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려웠다. 거기에다 젊은이도 아니고 나이든 어머니가 홀로 사실 집을 고르는 거였다. 내가 살 집을 고를 때보다 더 꼼꼼하게 찾아 헤맸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조금 마음에 든다 싶으면 집주인이 고개를 내저었다. 노모 홀로 지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결국 나는 셋집 고르는 것을 포기했다. 노모가 좀 더 편하게 지내시려면 차라리 내 집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다. 셋집이 아닌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아들 보고 나도 이제 자식이니까 우리 엄마한테 자식 노릇하자.
나도 엄마한테 간다.
다 큰 너는 내가 필요 없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필요하다.
가서 밥이라도 해 드려야 된다. 사는 동안에...
그래 가지고 나는 아들 집에서 나오고 지들끼리 살라고 놔두고 엄마한테 왔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같이 있었지. 엄마하고...”**

북현동에는 유독 골목길이 많고 길다. 꼬불꼬불한 그 길은 모두 집집이 모여 만들어졌다. 성냥갑처럼 작은 집들이 앞으로도, 옆으로도 이어져 만들어진 길이다. 얼마나 가까우냐면 서로 마주보는 두 집이 대문을 열면 그 대문이 서로 맞닿아 부딪칠 정도였다. 요즘에는 그런 골목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땐 흔한 모습이였다. 그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이웃들은 두런두런 이야기하기에 바빴고 아이들은 그 사이를 비집고 달음질치기에 바빴다.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집을 보러 다닐 때 그런 모습들이 싫지 않았다. 앞으로 살아갈 동네라 그랬을까? 정이라는 건 한 번 들이기가 어렵지 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스며들었다.

지금 내 집은 아파트다. 여름에 더울 일 없고 겨울에 추울 일 없는 집. 집 밖으로 나갈 일 없는 집.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집. 그게 요즘 아파트다. 편하기로 치면 아파트만한 집이 없다. 관리하기도 쉬워서 나처럼 늙은이가 살기에는 그야말로 최고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는 없는 게 하나 있다. 불편함도 감수하게 되는 정. 어머니를 향한 정, 이웃을 향한 정, 하나하나 손수 가꾼 집에 대한 정. 그런 정이 복현동 집에는 있었다. 47-5번지 집은 방 두 개짜리 담집이다. 셋집 얻기가 쉽지 않아 결국 사기로 마음먹었다. 별은 약했지만 소담했다. 집을 사자마자 내가 한 일은 어머니 사시기 편하게 고치는 일이었다.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낡은 방바닥도, 허술한 부엌도 전부 손봤다. 집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왔을 정도로 뜯어 고쳐놓고 보니 제법 마음에 드는 집이 됐다. 방 하나는 어머니가 쓰고 남은 방 하나는 내가 쓰기로 했다.

처음부터 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은 아니었다. 아마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내 삶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거다. 남편은 내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가족의 곁을 떠났다. 그 시절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젊을 땐 사랑하고 아끼며 살다가 아이를 낳아 키울 땐 삶에 쫓겨 살아야 했다. 아들 둘, 딸 둘. 슬하에 자식 넷을 함께 키우다 보니 세월이 그야말로 흐르는 물처럼 빨랐다. 남편은 돈을 벌고, 나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그땐 그게 힘든 줄도 몰랐다. 쑥쑥 커나가는 아이들 보는 낙이 우리 부부에게는 컸다. 아쉽게도 그때는 남편과 이렇게 빨리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다. 시집장가 보낸 후 각자 삶을 사는 아이들을 보며 이제 우리 부부에게도 걱정할 거리 없겠다 싶던 그때, 남편에게 병마가 찾아왔다. 여행도 취미생활도 다 미룬 채 우리 부부는 아들네 집으로 옮겨갔다. 아들네 집에서 서울 병원을 오가며 남편의 병간호를 했다.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길 바랐으나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남편은 그렇게 우리를 두고 미리 세상 여행을 떠났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홀로 계신 어머니가 눈에 밟혔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지금껏 홀로 사신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 짝 찾아간 아이들, 곁을 떠난 남편, 내가 홀로 되고 나서야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걱정엔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걱정하듯 나도 나의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고. 세상은 참 아이러니 하다. 남편과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된 지금에서야 어머니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참 씁쓸했다. 그간 홀로 계신 어머니를 언니와 번갈아가며 살펴봤지만 내 곁의 내 가족이 우선 순위였다. 평생 자식을 제일 먼저 생각하셨던 어머니와 달리 자식인 나는 지금껏 그러질 못했다. 그때 내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어머니의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다. 늦었지만 나는 '나의 우선순위'를 어머니에게 두고 싶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내 주변의 모든 게 선명해졌다. 위치는 언니네와 가까운 곳, 어머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했다. 1997년 복현동 47-5 번지 담집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80이 넘어가지고 90이 다 됐는데도 엄마 생각을 하니까 우습지요?

그래. 우습지. 그래도 이래 늙어도, 안만 늙어도

100살이 되도 엄마는 엄마인기라. 엄마는 엄마인기라...”

‘엄마’ 오랜만에 불러보는 말이다.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엄마’라 불러 본 적이 잘 없다. 속으로 되뇌던 단어를 낫선 젊은이들 앞에서 꺼내게 될 줄이야. 우리 엄마는 참 대찬 사람이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울 수 없던 시절. 그 시절에 한글을 익힌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외가 어른들이 엄마에게 글을 가르친 건 아니었다. 그저 공부하는 외삼촌 곁에서 눈동냥으로 글을 깨우친 거다. 나중에 그렇게 익힌 한글을 바탕으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설을 읽어주기도 했다. 어디 그뿐일까. 엄마는 어디서나 당당한 여성이었다. 지금 보면 그게 바로 신여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마는 어디서나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조선 땅에서 조선 여자로 태어난 엄마는 시집을 가서 딸 둘을 낳았다. 그게 나와 내 언니다. 그 시절 여인은 시집을 가면 반드시 그 집안의 아들을 낳아야 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러질 못했다. 집안에서며 동네에서며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을 터. 그럼에도 엄마는 움츠러 들지 않았다. 누가 딸만 있다고 무시하면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다. ‘너 아들 아무리 잘 나도 내 딸 발끝만도 못 따라 온다! 니는 아들 있으면 뭐 하노? 우리 딸들 손톱보다도 못한데’ 엄마의 그런 믿음 때문이었을까. 언니는 커서 간 호사가 됐다. 그때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으니 언니는 동네에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텔리임에 틀림없었다. 엄마의 말처럼 우리는 엄마에게 최고의 딸들이었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아들이 무슨 소용 있노! 우리 딸이 제일이지!’



“부모님 살아 있을 때 모두가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맨날 못한 것 같아”

꼬불꼬불한 골목길, 아이들 뛰노는 소리, 어머니 손잡고 다닌 길, 97년 복현동은 나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줬다. 어머니와의 추억. 복현동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어머니를 떠올리면 복현동이 생각났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낡은 집도, 좁은 골목길도 그리고 자그마한 우리 담집도 곧 사라질 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 머릿속에만 남은 복현동을 이 젊은이들이 기록한다는 거다.

**“내 나이가 63인가 그랬어요. 엄마는 90 넘었고
그 동네에서 호적상으로는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100살이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통장님이 막 사랑하고 댕겼다 카이.
우리 동네에는 백 살 넘는 노인이 있다 카면서.
지팡이도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두 개나 봤어. 장수한다고.
저기 있어 이제는 내가 딛고 다녀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정하셨다. 누구보다 정신도 맑고 짹짹한 사람이었다. 방 두 개를 나와 나눠 쓰면서 어느 날은 마실 다니고, 어느 날은 나와 고스톱을 치고, 어느 날은 나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다. 그 시간이 좀 더 길면 좋았으련만 어머니의 시간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았다.

북현동으로 이사 온지 1년이나 됐을까.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낸 후 이듬해 봄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동네에 봄이 오는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며 새 계절을 맞이했다. ‘올해도 어느 날처럼 보낼 수 있길’ 평범한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벚꽃이 피고,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던 때 어머니와 무엇을 할까 한참 꿈을 꾸고 있던 나에게 칭찬벽력과도 같았다. 1998년 5월 거뜬할 것 같던 어머니는 결국 자리에 누웠다. 100세 장수 지팡이를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받았던 나의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 단단한 고목처럼 나를 지탱해주던 사람이었다. 연세가 연세인지라 언젠가는 아프시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마주하게 되다니. 그 아픔을 무엇으로 이야기 할까. 그렇게 아프기 시작한 어머니는 쉽사리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처음에는 요강 같은 데도 이래 눕고 했는데 요강에도 이제 못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환자들한테 받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래 안고 요강에 얹혀도 안 되더라고.
사람이 그리 무겁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지방을 붙들고 당기고 들라카고
막 밀고 이래도 안 되더라카이.
결국에는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하는 기라. 내가 아흠 달을 받아냈어요.”**

정신이 말짱한 어머니는 나를 보며 면구스러워했다. 아마도 자식에게 못 볼 꼴 보인다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자식에게 고생만 시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무에 부끄럽고 무에 속상해 하냐고 속울음을 삼키며 투덜댔다.

하루는 어머니 대소변을 받으며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린 적이 있었다. 진한 냄새를 못 참고 본능적으로 찡그린 거다. 그 순간 참 많이도 울었다. 내 자식새끼 똥오줌은 좋다고 받아냈으면서 고작 아픈 어머니 똥오줌에 얼굴을 찡그리다니.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스스로에게 속이 상했다. 그리고 누워 있는 어머니에게 미안했다. 어머니를 앞에 두고 목소리를 짜내는데 목구멍에서부터 무언가가 꼭 막혔다. 겨우 뱉어낸 내 목소리는 낯선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통명스럽다 한 소리 할 테지만 누워계신 어머니는 그 목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았다. 딸의 목소리 곳곳에 묻어나는 울음을 어머니는 진즉 알고 계셨을 거다.

**‘엄마 내 똥 받을 적에 더럽다 소리 안 하고 냄새 난다 소리 안 했는데,
나는 왜 엄마한테 똥 냄새 난다고 소리 하노.’
“그래 그때 그 소리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자꾸 울었다...”**

1999년. 어머니가 내게 화투 한 판 치자했다. 늙은 어머니는 누워서 늙어가는 딸은 앉아서 그렇게 고스톱을 쳤다. 나는 어머니 손에 든 비광을 뺏어 먹으려고 이리저리 기웃댔지만 결국에는 못 뺏어먹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몇 판인지 모를 고스톱을 치다가 멈췄다. 어머니는 살짝 지친 듯 한숨 자고 일어나겠다고 이야기 했다. 여느 일상처럼 흘러가는 하루였다.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을까. 자고 일어난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 ‘나 이제 먹을 것 주지 마라’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평소와 같으면서도 다른 어머니의 모습. 나는 곧장 다른 방에 있는 언니를 깨웠다. 얼마 전부터 언니도 함께 와 있었다.

“언니, 와봐. 오늘은 암만 해도 엄마를 목욕시켜야 되겠어.”

나는 목욕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다 일어난 어머니는 나에게 바깥에 검은 옷을 입은 낯선 사람들을 봤다고 했다. 곧장 커다란 대야를 준비하고 따뜻한 물을 받았다. 보일러 불은 진즉에 뜨끈히 지폈다. 새털처럼 가벼워진 어머니를 커다란 고무 대야에 앉히고 따뜻한 물로 살살 문지르자 보드라운 살결이 느껴졌다. 최근에 살이 좀 더 빠졌는지 어머니의 아픈 몸은 더욱 앙상하게 느껴졌다. 몸을 깨끗이 씻긴 후 나와 언니는 어머니를 눕혀 드렸다. 곱게 누운 어머니는 다시 한 번 말했다. ‘먹을 것 주지 마라. 한잠 잘란다’ 어머니는 우리와의 이별을, 삶의 이별을 본능처럼 느꼈을까? 한잠 자겠다던 말을 끝으로 어머니의 눈은 더 이상 떠지지 않았다.

“살아 돌아가시는 사람들을 안 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봤으니까 아는 기라.”

점점 가빠지는 숨결. 심상찮음을 느낀 나와 언니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했다. 어머니의 여행길이 부디 고단하지 않길 바라며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혀 드렸다. 언니와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용한 방 안에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다. 옷을 다 입혀드리고 마지막 저고리 고름을 예쁘게 매어 드렸다. 어머니는 그 순간을 아시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고름을 매고 나자마자 먼 여행길을 떠나셨다. 부디 그 여행길이 고단하지 않길. 복현동 담집에서 나와 어머니의 시간이 그렇게 끝났다.

형제 많은 집이다 보니 손님도 많았다. 복현동 담집의 작은 방 2개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복현동 근처 언니 집에서 손님을 맞았다. 담집에는 어머니를 모셔놓고 윗방에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 잤다. 나머지 손님들은 모두 언니네 집으로 모셨다. 어머니 떠나는 마지막 길, 쓸쓸하지도 외롭지도 않은 길이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물결처럼 잔잔한 게.
사람이 그래 허무하더라고 사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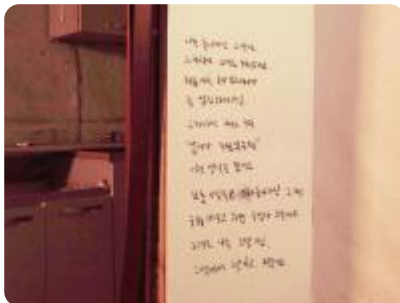
장례를 마치자마자 나는 빈 담집에 다시 돌아왔다. 남들은 그런 나를 말했다. ‘혼자서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아무리 어머니라도 돌아가신 사람이 있던 곳 이잖아.’ 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나를 보고 괴산서 온 울케가 며칠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 혼자 텅그러니 남은 내가 안쓰러웠나보다.

들어선 담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한 번도 비어 본 적 없는 집이건만. 심지어 장례 치를 때조차 북적북적하던 집이건만. 싸늘한 한기가 나를 감쌌다. 집을 고칠 때조차 느껴보지 못한 한기다. 처음으로 담집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 때는 무엇 때문에 무서웠는지 몰랐다. 남들 말처럼 망자가 있던 곳이라 무서운 건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를 떠나보냈다는 그 허전함이, 이제는 정말 나 혼자라는 그 쓸쓸함이 무서웠던 건지도 모르겠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케와 집에 들어왔다. 전처럼 사람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두 개의 방. 내가 있던 곳을 올케에게 내어주고 나는 어머니가 누워 있던 방을 사용했다.

“어차피는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방이고 두 칸이니까 이 방 저 방해서 사는 거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계셨던 자리. 그 자리를 가만 살펴보았다. ‘막내야, 화투나 한판 치자’ 내 손을 잡고 꼭 이야기 할 것만 같았다. ‘그렇까 엄마?’ 여기는 어머니 등이 닿았던 자리, 여기는 어머니가 매일 누워있던 자리, 여기는 나와 화투치던 자리... 나는 하염없이 그 자리를 손으로 쓸었다. ‘엄마’ 되돌아 올 대답을 바란 건 아니었다. 그냥 허공에 대고 불러본 그 소리가 너무도 처량 맞게 들렸다.





“참 사는 기라 카는 게...
이승과 저승이 초지일관이라고 그죠?
종잇장 한 장 차이인데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게 80이 넘어가지고 90이 다 됐는데
엄마 생각을 하니까 우습지요?
우습지. 그래도 늙어도 안만 늙어도 100살 돼도 엄마는 엄마인기라.”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진다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복현동 경로당의 경제 총무를 맡았다. 돌아가신 그 다음해부터 활동을 했으니 근 3년을 맡았다. 그간 여행도 많이 다녔다. 그 덕에 어머니 그림자를 잊고 살아냈다. 문득문득 그림자 없는 날이 있으랴. 그럴 땐 경로당에서 즐기차게 화투도 쳤다. 아침 먹고 출근 하면 모두 모여서 점심을 해먹고 덥고 추울 땐 한집 살이 하듯 경로당에서 보냈다. 어느 날은 수제비, 어느 날은 된장찌개, 어느 날은 옥수수.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라더니 동네사람들은 또 다른 식구가 되었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았다. 피붙이처럼 가까웠던 이웃 식구들과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마을에 재개발이 결정됐다.

아웅다웅 산 세월을 모두 두고, 어머니와의 추억도 모두 두고 47-5번지 담집을 나도 떠나야 했다. 빈집을 떠나는 심정이야 오죽할까. 낡은 담집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세간살이가 눈에 밝혀서도 아니다. 그 담집은 나의 일부분이었다. 함께 한 세월이었고, 어머니와 나를 보듬어 준 공간이었고, 이웃을 맺어준 인연이었다.

이사 온 아파트는 참 좋다. 별이 잘 들어 따뜻하고 주택보다 생활하기도 훨씬 편하다. 여기에서도 이웃을 새로 사귀었다. 날이 좋으면 등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앉아서 경치도 보고 그냥저냥 지내는 중이다. 하지만 복현동 그 담집처럼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진 않는다. 20년 세월을 어찌 비교하랴.

어느 날은 내가 아팠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이니 여기 저기 고장이 잦다. 병원 들락날락하기야 늙은이에게는 여사인 일. 그런데 어디서 소식들을 들었는지 복현동 식구들이 병문안을 왔다. 이제 전부 흩어져 지내는 지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너무 반가웠다. 마을을 떠나 모두 새 동네에 정착한 지도 꽤 됐을 터. 모두 그리운 마음에 함께 온 거였다.



요즘도 누워 있으면 어머니 생각, 이웃들 생각이 많이 난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벌써 그림던 얼굴들 중엔 고인이 된 이도 여럿 된다. 모두 복현동 마을을 떠났지만 마음만은 하나였다. 마을이 다시 지어지면, 예쁜 새 집이 지어지면 다시 가서 재미나게 살아보자고. 담집의 옛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 터는, 그 땅은 그대로이니 다시 돌아가자고. 새 집 지으면 재미나게 다시 살아보자고 약속했다. 건강하게 다시 복현동을 밟을 수 있길 나는 바란다. 나의 어머니가 있었고 나의 이웃이 있었던 그곳으로...







복현동 '세월'의 재개발

한영자 할머니



씩 다 갈아 엮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썩 다~
씩 다 갈아 엮어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주세요~♪

나는 저 노래의 가사와 제목이 싫다. 가수 유산슬씨와 저 노래의 선율마저 싫은 건 아니다. (나는 참고로 유산슬씨도 유재석씨도 좋아 한다. 아무런 유감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유독 저 ‘재개발’이라는 제목과 ‘씩 다 갈아엮어 달라’는 노골적인 저 가사가 싫다. 내 마음이 금싸라기라면 아끼고 또 아껴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순 없는 것일까? 기어이 새 사랑을 피우려고 지나간 사랑도, 지금의 내 마음도 굴착기로 빙빙 뚫어야 한다면 그 사랑 나는 반대다. 그 사람 마음을 내 마음에 심기만 하면 팔이든 콩이든 무엇이든 핀다는데 왜 하필 마음을 뒤집어엮어야 한단 말인가.

재개발.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다. 위험한 길, 낡은 집, 노후화 된 시설을 고쳐 사람들 편하게 만드는 것을 누가 반대하랴.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동네의 세월, 숨겨진 역사, 사람들의 추억, 삶의 이야기마저 썩 다 땅 밑으로 묻어버리는 것이 못내 아쉽다. 이미 대구에는 수많은 동네가 재개발 됐거나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한 독립운동가의 집도, 한 예술가의 작업실도, 터를 일궈온 사람들의 역사도 뒀안길로 사라졌다. 나는 그 땅에서 산 사람은 아니다. 대신 사라져 가는 수많은 땅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이다. 내 발걸음은 이제 여기 복현동, 피란민촌에 닿았다.

“대현동에서 왔거든. 그래. 한 50년 됐지...”

한영자 할머니는 올해 복현동 재개발 지역에서 내가 방문한 두 번째 집이다. 지난 10월 27일 찾은 복현동 동네에는 벌써 빈집이 수도룩했다. 30여 가구는 아직 이곳 복현동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영자 할머니네도 그 중 하나였다. 할머니가 이곳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여기가 ‘할머니의 삶’ 그 자체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살면서 이곳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 자신의 삶이 이곳에서 시작됐기에 그 삶의 마지막도 이곳일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낮선 곳에 갈라 카이 서글퍼 죽겠다. 지금...”

그래 가기 싫어 가지고 이래 있으니까네...

자고 나면 걱정이라. 잘 때는 모르겠는데 눈만 뜨면 걱정이야.”

요즘 사람들 기억에는 없지만 복현동 615-4번지, 617-8번지 이 일대를 다른 이름으로 피란민촌이라 불렀다. 과거 대구광역시와 경북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터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이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복현동이 아닌 피란민촌으로 불렸던 과거를 되짚어 보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세는 북한에 유리했다. 북한군의 파죽지세에 밀려 남한군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다. 한쪽에서는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졌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목숨을 건 피난이 이어졌다.

**“우리 올 때만 해도 이 너미 넘어가면 전부 산이고 그랬거든.
제실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뭐 흔적이 없다 지금. 개발이 많이 됐지.
이 동네만 개발 안 됐다 카이. 이게 옛날에 말하자면 6.25촌 택이라.
옛날에 신암동 칠성동 있지요. 그 강가에 전부 집이 많이 있었거든.
태풍이 와갖고 이 동네 다 왔다 카이까네.
먼저 살고 갔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와서 살았는 거라.
그래서 집이 마카 쪼맨쪼맨하게 요래 지어 놨잖아.”**

피난민은 신천 강변과 복현동, 그리고 그 주변에 터를 잡았다.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란 생각에 어영부영 잡게 된 터. 하지만 그들은 1955년 휴전이 된 후에도 고향으로 갈 수 없었다. 땅을 가로지르는 휴전선이 생기면서 시작된 긴 이별. 남한에는, 대구에는 피난민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런데 터를 잡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신천 강변이 불어나면서 그곳에 살던 피난민과 주민들의 집이 쓸려 내려갔다. 경북대학교 안에서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은 임시로 쓰던 학교의 땅을 비워줘야 했다. 수해로 땅을 잃거나 혹은 교내 국공유지 땅을 비우면서 이들은 다시 복현동 한 편으로 모였다. 당시 이곳 8,893㎡의 복현동 615-4번지, 617-8번지 일대에는 100채 가량의 소규모 무허가 주택이 지어졌다. 그들이 닦아 놓은 터가 피란민촌을 만들었고 지금의 복현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친정이 이 동네에 있었어요.
저기 경북대학교 안에, 거기에서 살았어.
거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철거되어가 일로 왔거든.”**

한영자 할머니의 친정인 동네. 복현동은 할머니의 고향이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북대학교 안에 있던 집을 이곳 복현동으로 옮겨왔다. 당시 친정에는 형제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 동네 너머는 전부 산이었다. 산을 배경으로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긴 골목을 만들고 이 골목을 터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나고 자란 동네를 떠난 할머니. 누구나 그렇듯 결혼 후 할머니는 이곳 복현동을 떠나 할머니만의 가정을 꾸렸다. 남편과 함께 복현동 아랫동네인 대현동에서 신집살림을 차린 거다. 그러다가 다시 이곳 복현동으로 넘어왔다.

**“몇 년도 인지도 모르겠어. 대현동에서 왔거든.
친정에 올케 본다 해갖고 그래가 이 집 사가 왔다 카이카네.
친정에 이제 살림 살아주려고 왔지.
그 길로 와가 딱 데 못 가고 맨날 여기 살았는 거라.”**

첫째 딸과 둘째 딸 손을 잡고 찾은 친정 동네. 아랫길에는 친정집, 윗길에는 지금의 집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형제들이 남아 있어 마음이 편했다. 한영자 할머니는 오빠 결혼에 맞춰 그렇게 복현동으로 다시 이사 왔다. 새 식구로 들어온 올케와 집안 식구들이 있는 곳. 당시 부부에게는 여기가 제일 마음 편하고 든든한 곳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선택한 부부. 젊은 시절 할머니는 돈 되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도맡아 해왔다. 힘한 일, 힘하지 않은 일 가릴 것이 없었다. 집 짓는데 쓰이는 벽돌 공장에 다니기도 했다. 벽돌을 만들어 직접 찍어내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조수로 지내면서 허드렛일을 해왔다. 남편은 주물 공장에서 일을 했다. 남들 보다 긴 하루를 보낸 두 사람. 이른 아침에 출근해 늦은 밤에 퇴근 하기가 여사였다. 그런 부부에게 친정 동네는 삶의 든든한 결이자 힘이 됐다.



“먹고 살기 바빠가 좋은 줄도 모르고 그래 막 살았지.”

북현동 네 가족은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단칸방이어도 제법 큰 방이 딸린 집이었다.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무엇이 마음에 들어 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할머니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단다. 이 동네 모두 그랬지만 따뜻한 방에 온수가 콧물 나오고 불까지 밝은 집은 잘 없었다. 할머니네 집 역시 처음에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다. 당장 써야 할 물이 없는 집.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50여 년 전 북현동 동네는 그러했다. 워낙 다닥다닥 붙어서 지어진 집은 대부분 허가되지 않은 주택이었다. 때문에 수도시설, 오수시설이 제대로 들어서기 힘든 구조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할머니 집에는 전기가 들어왔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다.

큰 방 하나로만 지어진 집은 방 바깥으로 돌아 나가면 재래식 부엌이 자리했다. 화장실은 마을의 공동 화장실을 쓰거나 재래식 화장실을 써야 했다. 이것저것 고치고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가장 급한 수도는 긴 호수를 이용해 다른 집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살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갔다. 그때 당시 돈 500만원은 꽤 큰돈이다. 거금을 들여 집을 보수했다.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장 필요한 것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삐걱삐걱한 낡은 문은 새 대문으로, 집 밖의 공동화장실은 집 안의 새로 만든 화장실로, 연탄불은 뜨끈한 보일러로, 바깥의 추운 아궁이 부엌은 집 안의 신식부엌으로, 낡은 지붕은 매끈한 옥상으로. 집 안의 모든 공간은 두 부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났다. 그때 매만진 집이 지금까지 노부부를 지켜온 것이다. 집은 할머니에게 자식처럼 애뜻하고 남편처럼 든든한 공간. 50년 넘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줬다.



“그래가 이래 못 가고 있다.”

한영자 할머니 슬하에는 다섯 명의 자식이 있다. 대현동에서 복현동으로 올 때 함께 온 큰딸과 둘째 딸. 이후 이곳 복현동에서 낳은 자식 셋이 그들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1남 4녀로 이뤄진 대가족. 이곳 복현동 집에서 셋째 딸과 넷째 딸에 이어 남편이 바랐던 막내아들까지 낳았다. 동네에서도 한영자 할머니네는 다복하기로 소문난 집이다. 여기서 자식 다섯 명의 공부를 다 시키고 시집 장가를 다 보냈다.

**“이제 딸 들이는 이 동네 와가 낡고, 아들하고 서이는 여기서 낡았지.
여기서도 다섯이 다 출근시키고 다 시집보내고 장가보내고 다 했다.”**

할머니에게 이 집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바로 ‘아들’을 낳았을 때다. 바로 이 단칸방에서 외아들이 태어났다. 197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성별 구별 않고 잘 낳아 잘 기르자던 시대가 바로 50년 전이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외침. 하지만 농경사회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에서 아들은 생계에 중요한 노동력이었고 집안의 대를 잇는 기둥과도 같았다.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었으나 오랜 관습을 끊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머니가 산 시대 역시 50여 년 전. 내리 딸만 넷을 낳은 한영자 할머니에게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 출산’은 그 시대 여성으로서의 사명 같은 것이었다.

**“이 방에서 아들 태어났다.
좋은 줄도 몰랐어. 그때는...
왜 그러나 하면 딸만 자꾸 놓으니까.
내리 딸을 놓으니 또 딸인가 싶어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더라고.
내가 이제 아들은 놓기는 낡았는 갑다 싶었지.”**

이 방에서 태어난 아들. 할머니는 너무 좋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섯 아이 먹고 입히려니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부부까지 일곱 식구 건사를 해야 할 때. 두 사람은 커 가는 아이들 재롱 볼 새 없이 일을 다녔다. 딸을 키울 때도 그 귀한 아들을 키울 때도 할머니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였다. 아이들 재롱에 좋은 것도 한 순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자식에게 궁핍함을 줄 수 없었기에 부부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아이들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 없다. 장성한 아들과 딸을 볼 때마다 마음에는 미안함이 자리한다.



**“우에 컷는 것도 모르겠고 뭘 먹고 컷는 것도 모르겠다카이까네.
그래 그래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말썽 한번 피운 적이 없다. 마음으로 보듬고 품었지만 돈 버느라 내 손으로 직접 보듬어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잘 커졌다. 작은 방 하나에 일곱 식구가 살았다. 이 작은 방에서 아이들은 먹고 자고 공부하며 스스로가 알아서 커졌다. 그게 더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

삼시세끼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 한 솥 지어 놓은 밥과 반찬이 전부였다. 그러면 학교 다녀온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먹고 차려먹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챙기고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챙기고. 다섯이서 그렇게 커 나갔다면 대견스러워 하는 한영자 할머니.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들의 할머니가 곁에 있었다. 매번 홀로 있는 손주들을 할머니가 곁에서 돌봐줬다. 학교 갔다 오면 아들은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동네 이곳저곳을 다녔다.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귀여워 아낌없이 베풀어줬다. 장난감에, 군것질거리에, 할머니 사랑에 그렇게 다섯 아이가 복현동에서 커나갔다.

**“머시마는 전기밥솥 해놓으면 저녁에 오면 막 친구들 불러다가
막 라면 봉지가 한 방이야. 라면 삶고 밥 그거 다 퍼 먹어 부고.”**

구김살 없이 밝게 자란 아들을 생각할 때면 할머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진다. 어린 시절 욕심 있기 마련이고 싸움하기 마련이고 투정부리기 마련인데 아들은 그런 게 없었던단다. 하루는 아들이 친구를 잔뜩 집에 데리고 왔다. 반찬 없을 때 챙겨 먹으라고 사다둔 라면과 끼니 거르지 말라고 해둔 밥이 그날 메뉴. 라면에 밥에 잔뜩 풀여서 먹이더니 사다준 장난감마저 친구들에게 하나씩 안겨줬다. 욕심 없는 녀석을 혼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다. 엄마 곁에 있어야 할 나이에 엄마 손을 타지 않은 아들. 그래도 빗나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어디 아들뿐이라 네 딸 모두 곱게 커줬다. 아무 탈 없이 잘 커준 아이들. 이 작은 방에서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크게 자랐다. 장성한 아이들 보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 한단다. 이 작은 방에서 어떻게 그렇게 컸냐고.

“우리 아들이 칸다.”

“엄마, 그때는 방이 너른 것 같디 왜 이렇게 요새는 더 슬아졌노?”

“너른 집에 저거가 사니까 와 보면 슬아보이지.

그래도 여기서 너 다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 그랬다.”

아이들 크는 건 금방이더란다. 한영자 할머니는 두고두고 아쉽다. 사는 데 쫓겨 아이들 크는 그 귀한 모습을 눈에 다 담지 못했다. 지금도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 모습이 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할머니. 커 가는 시기를 놓치고 나니 부쩍 큰 아이들은 어느새 부모 곁을 떠날 때가 돼 있었다. 그렇게 장성한 아들, 딸이 어느새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해준 게 없어 늘 안타까울 뿐이다. 아들딸이 나이 들어도 엄마 눈에는 매번 챙겨야 할 어린 자식으로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엄마의 빈 마음은 다섯 자식들의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래, 고마운 집이라 진짜. 모두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까지 우리도 이만하면 건강한 랙이고.”**

마을의 쇠함을 집도 아는 거다. 노부부와 50년을 함께 해오면서 잔고장 한 번 없던 집이 이제 슬슬 여기저기 아픈 소리를 낸다. 이번에는 보일러가 고장 났다. 난방도 더운 물도 나오지 않는 집. 노부부는 전기난로와 가스로 최대한 버티고 있다. 아들은 그런 두 사람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섯 자식들이 돌아가며 사정하지만 두 부부는 버틸 때 까지 버티려 한다.

**“지금은 빈 집이 많아. 밑에 전부 다 비워 놔다.
몇 집 없을 거라. 한 30 집이 있기는 있다 카는데 안 사는 집이 많아.”**

할머니가 어릴 때 이곳은 많은 피란민들이 살고 있었다. 한국전쟁에서부터 그리고 휴전이 된 후, 근처 신암동과 칠성동 그리고 더 먼 곳에서 넘어 온 피란민이 일구었던 땅. 그리고 어른이 되어 신랑과 함께 왔을 때 복현동은 또 한 번 모습이 바뀌어 있었다. 복현동 1세대 주민들이 일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복현동의 골목은 더욱 고블고블해지고 길어졌다.

그때는 떠들썩했을 골목이 찬찬히 눈앞에 그림처럼 그려진다. 캄캄한 새벽부터 골목에는 두부장수, 계란장수 종소리로 부스럭부스럭. 아침이면 닭이 울고 이불 털고 청소하는 소리로 시끌벅적. ‘안 일어나나!’ 집집마다 고함 한 번에 후다닥 일어난 아이들이 세수한다고 들썩들썩. 이집 저집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그러다 어느 집 아궁이에 밥 놓는 냄새가 솔솔. 학교 간다고 한바탕 논다고 대문 밖을 나서는 아이들 소리로 우당탕탕. 사람 사는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을 이 골목이 이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스산하기 짝이 없다.

**“많이 아쉽지. 지금 불편한 게 있어도 이대로 살라카면 좋겠어.
그렇지만 나라서 하는 일이 돼 갖고 안 가고도 안 되고 그래요.”**

재개발이 싫어서가 아니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노부부가 평생 다듬고 손때 묻은 집, 집의 그 세월과 추억마저 재개발 된다는 것이 안타깝고 쓰라릴 뿐이다. 동네사람 발길에 풀 자랄 일 없던 골목길이었다. 재개발 소식이 뜨고 하나 둘 동네사람들이 떠나면서 어느새 골목길에는 풀이 한껏 자라났다. 아래 위 할 것 없이 전부 빈집이 됐다. 동네사람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집 해봐야 서른 가구 남짓. 모두 칠곡으로, 한적동으로, 신암동으로 떠나갔다. 6~70년 전 복현동은 한국전쟁으로, 수해 이재민으로, 국공유지 철거로 떠밀려 온 주민들이 만든 동네다. 그렇게 시간에 잊혀진 동네는 어느 날 재개발로 다시 떠밀려 가는 신세가 됐다.

두 부부도 이제 곧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안다. 올해 설 쉬면 할아버지는 86세, 한영자 할머니는 80세가 된다. 두 부부는 이 불편함을 참고서라도 이 집을 지키고 싶어 한다. 두 사람의 집은 그들의 젊음이 담긴 집, 일곱 가족의 시간이 담긴 집이다. 나의 분신처럼 가꿨던 집의 마지막. 그렇기에 자신과 함께 나이든 집이 끝내 허물어져 사라지는 모습을 두 사람은 볼 자신이 없다.

**“저 반야월 쪽으로. 딸이 사는 집에 한태 들어 갈라고 해요.
이사는 11월 말에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모르겠어. 아직까지...
있는 데까지 있다가 가야지.”**









사랑하는 그대에게

손삼익 · 이말순 부부



To. 말순씨, 나요. 삼익이

매번 애들 엄마, 애들 아빠로 부르고 불리다가
이렇게 우리 이름으로 부르니까 쑥스럽네.
우리가 열여덟, 열아홉에 만나 벌써 육십 해로를 넘겼소.
부부가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며 즐겁게 늙어 가는 걸
백년해로라 하지 않소.
고생은 했지만 우리 부부가 딱 그런 것 같소.
기억하오? 우리 처음 결혼했던 날.
그때 당신 참 고왔지.

손삼익

“한 살 내가 적지요.
경주 안강 카는데서 왔어요.
우리나라가 참 못 살 때입니다.
못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 하나 덜려고 결혼한 거지.”

To. 삼익씨, 당연히 기억하지요.

이름 대신 애들 아버지라 부르는 게 편해졌지만
처음 함께 한 그때를 어떻게 잊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어찌나 살기 어려웠는지.
집안이 어려우니 여기서 배품지 말고
시집가서 뜨신 밥이라도 먹으라고
집안에서 소개시켜 준 자리였지요.
어디 사는 누군지 이름만 듣고 처음 만났지요.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던 때
서로를 의지 삼아 한 가족이 되었는데
어찌 그걸 잊을까요.

이말순

“중매결혼 했어요.
여기는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는데
밥 해 먹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장가 오고.
나는 못 살아 가지고 밥 먹으라고 시집 왔고.
우리 시집장가 올 때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썼어요.”

To. 말순씨

나는 결혼해서 어찌나 좋았는지 모르오.
결혼할 인연은 단번에 알아본다지 않소.
그 시절 모두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서 만난다지만
당신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했소.
그렇게 만나 지금까지 함께 이 길을 걷는구려.
지금 생각해도 당신을 만나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오.
홀시아버지 밑에서 당신은 집안 살림 꾸리느라 고생했겠지만
나는 그 시절 기억이 아직도 아련하게 남아 있다오.
고향에서 첫 살림을 꾸리고 두 아이를 낳고 참 다복했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온전히 나와 당신 그리고 아이 둘만 남게 되니
젊은 마음에 욕심이 생기더구려. 더 벌어서 가족들 호강시키고 싶은 생각.
촌이 아닌 도시로 나가서 아이를 키우고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픈 마음에
당신을 더 고생시킨 거 같아 그때도 지금도 미안하구려.

손삼익

“나는 일찍 결혼을 하고 그렇게 둘이 결혼해서 거기 안강에서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촌에 살기 싫어가지고
그래 어차피 애들 교육도 있고 하니까 대구로 가자.
그래가 대구로 왔어요.”

To. 여보, 삼익씨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해 결정한 거였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 했어요.
난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것도 촌에서 도시로, 대구라는 큰 도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올라가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고생은 각오한 걸요.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하느라 당신이 더 고생이 컸지요.
전 오히려 당신이 고맙고 대단해 보였어요.
당신 그때 이야기 하니 대구에서 처음 자리 잡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우리 동네 복현동 기억하지요?
먼저 집이며 일자리며 알아본다고 대구로 갔었잖아요.
늘 함께였는데 당신과 떨어져 지내는 건 결혼하고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이들 교육문제로 '그리하자' 결정했지만
저는 홀로 지내는 동안 걱정이 많았어요.
'타향살이를 어찌하나', '잘 할 수 있을까',
'당신은 가서 잘 지내고 있나', '홀로 힘들 텐데'
낮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지만
밤에는 이런 저런 생각으로 잠을 자지 못했지요.
그저 잠든 아이들 얼굴만 하염없이 지켜봤습니다.

To. 말순씨

지금도 이사 온 날 날을 정확히 기억하오. 1968년도 봄이었지.
이 동네 저 동네 알아보다가 찾은 곳이 복현동이었소.
긴 골목을 걸어가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었소.
'돈을 벌자' 돈 벌어서 당신도 아이들도 건사하자.
매일밤 그 생각으로 혼자 버텼었지.
더 큰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에 대구행을 선택했지만
사는 건 여기나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더구려.
물론 안강에선 이렇게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진 않았지.
안강에서 본 논밭이나 복현동에서 본 논밭이나 매한가지인데도 느낌이 달랐소.
꼭 남의 동네에 와 있는 느낌이었지. 아무래도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 컸지.
그때 직장이 신암동에 있는 신생공업사였는데 집에서 거리가 꽤 되는 곳이잖소.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찌나 길던지.
복현동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그 골목길이 그렇게도 싫었지.
집집마다 들려오는 가족들 소리가, 맛있는 저녁 반찬 냄새가
좁은 골목길 안을 채우는데 유독 그 고불고불한 길을 지날 때면
당신과 아이들이 많이 보고팠소.
잠깐이었지만 참 헛헛했지.



손삼익

“1968년도 봄에 와가지고. 봄에는 내 혼자와가 살았고.
이제 가을 때 집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여기는 돈 벌러 왔어요. 애들 교육시킨다고 왔다만은
애들 교육은 하나도 못 시켰지.”

To. 삼익씨

1968년 그해 가을에 아이들 손 붙들고 저도 올라왔지요.
생각해보면 대구에 처음 자리 잡을 때보다 안강에 홀로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땐 젊었을 때니까, 뭐든 같이 해내면 될 때니까,
당신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고향 살림 정리하고 대구로 올라오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둘째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이사할 때 힘든 줄도 몰랐다니깐요.
3살 된 큰 애 붙들고 이제 막 낳은 둘째 안고 차를 타는데 오히려 힘이 났어요.
참, 당신 이사할 때 기억나요? 그때 공장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도와줬잖아요.
커다란 트레일러에 실린 짐 나르는 거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하긴 그땐 그런 때였어요.
십시일반 조금씩 조금씩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 벗고 나서줬죠.
참 사람냄새 나던 그런 때였어요.
지금에야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돈만 주면 포장이사 업체에서 싹 다 해주지.
참 그러고 보니 이런 일도 있었네요. 이사하는 날 동네에서도 난리였잖아요.
'젊은 부부 이사 온다고' 여기저기서 나와서 인사해주고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 어찌 됐나 몰라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그때 그 분들 참 고마웠는데...
그러고 보면 이날 이때껏 당신 참 착하고 건실하게 잘 살았어요. 여보.

이말순

“대구와가 사느라고 애 먹었어요.
매일 밥도 실컷 못 먹고 그랬다.
그때는 연탄 한 장에 7원, 8원 했어. 70원, 80원이 아니고.
그때 우리 와가 보리쌀도 못 사목어가 보리쌀도 한 되 사가와가 먹고
쌀도 한 되 사가와가 먹고 그랬어요.
누가 한 키 왔다 카면 촌에서 누가 아들이라도 하나 왔다 카면
또 쌀 한 되 더 팔러 가야 되고 이랬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To. 말순씨 역시 당신뿐이오.

그때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 당신이 알아주면 그게 최고지. 뿌듯하오.
그때. 참 그랬소. 공장 사람들이 우리 첫 이사를 도와줬지.
거기가 복현2동. 복현동에서의 우리 가족 첫 집이었지.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기다 보니 우리 공장 사람들도 보고 싶구려.
그때 다들 열심히 했었지. 공장 이름 기억나오?
신생공업사! 옛날에 궁전예식장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주물공장이었지.
지금은 궁전예식장 이름도 바뀌고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섰소만,
내가 공장 다닐 적에 그 길은 전부 논밭이었소.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더구려.
지금은 변화가가 되어 번쩍번쩍 거리는데 새삼 격세지감이 느껴지더군.
내가 그 자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다녔지.
나중에 공장자리를 이현동으로 옮기고 나서도 한 40년을 더 다녔으니
내 평생을 바쳐 일해 온 곳이오.

손삼익

“신암동 신생공업사카는데 거기 다녔어요.
지금 궁전라벤더 그 자리에 거기에 한 30년 가까이 다녔어요.
거기에 평화시장도 들어서기 전에 내가 왔어요.
68년도 그때는 평화시장도 없었고,
거기는 전부 다 논이고 밭이고 그랬어.”

“공장을 사다가 신암동에 오래 있었어요.
결국 이제 쫓겨 나갔지.
나갔는 게 어디로 가냐 하면,
이현동으로 가가 거기서 내가 한 40년 있었어요.”

To. 말씀씨 당신 참 고생 많았소.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아이들 넷 키우기가 어디 쉬운 일ियो.
당신이 그 대식구 건사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
그때 당시 나는 돈을 벌면서 한 생각만 했소.
우리 아이들 밥 굶기지 않는 거.
그때가 아마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일 거요.
한창 클 때니 지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소.
녀석들 굶기지 않고 든든하게 쌀밥 먹이려니
한 달에 한 가마니씩은 꼭 필요하더군.
그때가 아마 1970년대쯤 될 거요.
곡물파동이 일어나서 까딱 잘못하면 굶게 생겼지 뭐요.
쌀값이 올라 돈 없는 이는 밥을 먹지도 못하게 됐으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오.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가르쳐주고 싶어 데려왔건만
그때 당시에는 밥도 못 해먹이게 생겼으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오.

손삼익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니
매달 내가 나가서 일만 하면 딱딱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지.
저축은 못하고 한 달 좀 당겨 먹고 또 돈 나오면 갚아주고.”

To. 여보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했어요.
돈 한 푼이 아쉬울 때에 아이들 모두 고등학교 뒷바라지 해주느라
정작 나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참 저도 애가 많이 탔지요.
아이들 점심, 저녁 도시락에, 당신 점심 도시락까지 일곱 개를 썼으니까.
몸은 종일 부엌에서 찬 만들기 바쁘고,
마음은 종일 식비며 생활비 걱정하기 바쁘고. 그때가 참 고비긴 했어요.
하루 종일 고생하는 당신, 뭐든 먹고 싶을 아이들 생각하면
맛있는 거만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 속이 상하지요.
그래도 당신이 매달 벌어들여 주는 걸로 어찌 어찌 살았어요.
가게 가서 외상으로 찬거리랑 생필품 살 때면
낮간지럽고 발길 떼기가 미안해도 어찌겠어요. 아이들이 있으니 부탁할 수밖에요.
그렇게 한 달 외상하고 월급 나오면 갚아주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요. 그래도 그땐 모두가 어려웠으니까.
형편을 알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고, 우리가 잘 이겨왔구나 싶고,
오만가지 마음이 다 듭니다.

이말순

“나는 돈 벌러 못 갔지. 애들 때문에 못 가고 애들 점심 싸고 저녁 싸고
이 양반 점심 싸고 이러니까는 일곱 개 싸는 기라.
지금은 밥도 하기 싫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싸왔는지 몰라.
못 사니까 주로 나물 종류지.
오뎅하고 계란 프라이 해주는 그게 최고 잘해주는 기라.
오늘 월급 라가 오면 오늘 저녁에 다 갚고 나면 돈 한 개도 안 남아.
그럼 또 외상 묵는 기라.
쌀도 외상 먹고 막 외상 갖다가 먹고 이러는 기라.”



To. 삼익씨

난 아직도 당신한테 미안한 게
돈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구멍가게며 점빵 연 거. 그게 제일 미안해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좀 더 불러보겠다고 시작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1년인가 2년 가까이 문을 열었는데 본전도 찾지 못하고 돈만 다 까먹고.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당신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그래도 시기가 조금씩 지날 때마다 우리는 살기가 괜찮아 졌어요.
그게 다 열심히 산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성실한 당신 덕분에, 착한 아이들 덕분에 잘 살 수 있었으니
참 행복하게 산 셈이지요.
참, 그리고 보니 이젠 한 소리해야겠어요.
당신 그때 점빵 때문에 속 많이 상해했는데.
화난다고 비싼 텔레비전을 사면 어쩍니까?
나도 좀 더 애써본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든데 당신 마저 너무 속상해하니까
그때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말순

“그래 살아도 좀 괜찮게 살았는 략이라.
1등, 2등, 3등 이래 살았는데
그래도 뭐 몇 등에 더 갈 정도로 살았다카이.”

To. 말순씨,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속상하오!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 돈이 크지 않소.

지금 생각해도 속이 상하오.

물론 당신도 애쓴 거야 알지. 알면서도 속이 상하는 걸 어찌겠소.

집 한 채 사놓지를 못했는데 일이 그렇게 되니 아쉬운 거 말로 무얼 하겠소.

그래도 그 고비 잘 넘겼으니 오늘이 있는 거 같구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손삼익

“도지 150만 원 주고 와가지고
한 2백만 원 이상 들어가지고 점방을 해놨디만은
그게 한 1년 좀 넘었나? 한 2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하나도 없고.
도지 그것만 남았는 거라. 내가 만날 칸다.
내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놈의 그 도지 받아가지고 신경질 나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당시 처음 흑백 텔레비 나왔습니다.
텔레비 넣었어요. 우리 집에...”



“그래 그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고정된 게 있으니까
애들 배는 곱지 않고 살았지.”

To. 삼익씨

맞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순탄하게 살았지요?
같은 동네에서 몇 번 이사도 다녔지만 곧 우리 첫 집도 장만하고.
그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집 주인들이 시끄럽다고
집을 안 주려고 했잖아요.
내 집 없는 설움이 제일 큰데 어찌어찌 첫 집 장만도 하고.
가만 보면 큰 탈 없이 잘 산 거 같아요.

이말순

“한 사람은요. 19년 살다가 나갔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하면 아무도 안 나가.
한 사람은 방 얼으러 와 가지고 딸이 셋인데
가만 보니까 들이는 숨기고 하나만 데리고 오라 카더라 카이.
말하는 투 들어보면 알잖아. 그래가 내가 데리고 온나.
가만히 보이 아 한 들이는 숨기는 것 같네.
다 데리고 온나카니 얼마나 좋다고
한 3년까지도 우리 집에 여름만 되면 수박 사가 들고 왔어.”

To. 말순씨

그런 건 우리가 인복이 많았던 거 같아요.
당신이나 나나 열심히 산 보답을 받는 거지.
우리 집 살 때 생각해봐요.
사촌형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 덕분에 다섯 칸짜리 첫 집도 얻었잖소.
우리 집에 남은 방 세 놓으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다 좋은 이웃들 아니었소.
나는 일찍 출근하니 잘 모르지만
저녁이면 셋집 사람들, 이웃 사람들 모두 와서 왁자지껄하게 있으니
그것도 참 좋더이다.

손삼익

“나는 아침에 일찍 출근 해부지만
집사람은 집에서 동네 아줌마들 하고 들락날락하면서
이 집에는 뭐 먹었노. 뭐 잘해 먹었노.
옆집 반찬 하는 것까지 다 알잖아.
맛있는 거야 뭐 한 번 줘야지 안 주고 우야노
그런 한 방 한 방 같은데.”

To. 말순씨

사는 게 참 그런 거 같소.
소소한 그런 재미로 사는 것 같소.
우리 살았던 동네 이름이 복현동 아니오?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 복자는 아니겠지만
우리 부부한테 복현동의 ‘복’자는 복 복자라.
아이들 무탈하게 잘 키웠고
우리 부부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있고
지금까지 배움고 산 적 없고.
그 정도면 참 좋은 동네, 좋은 집 아니오?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아이들 공부 못 시킨 거.
그거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한으로 남지 싶소.
고향 등지고 대구로 왔을 때는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 거.
우리가 못 배웠던 거 우리 아이들은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왔는데
결국 먹고 사는데 바빠서 가고 싶어하는 대학공부 못 시켜준 거
그게 참 지금까지 가슴 아프오.

To. 삼익씨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도 그때는 평생 한으로 남지요.
넷 중에서도 막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제 뜻 꺾고 고등학교만 졸업시켜줬을 때 저도 피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대견한 건 우리 아이들 넷 다 잘 커줬잖아요.
직장 잘 얻고 나중에는 지들끼리 대학도 가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손주도 봤으니 그걸 생각해요.
여보. 전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복이 우리 아이들이 준 거라고.
평생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착하게 커준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삼익씨, 우리 이제 좋은 생각, 좋은 것만 보며 앞으로 삽시다.

손삼익

“우리 누님이 동생 집에 온다카면서 촌에서 와가지고
동생 집을 못 찾아 가지고 엉뚱한데 들어가서
내 이름을 대니까 알 수가 있는 거.
그런데 우예 가지고 우리 집을 아는 사람이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
한 이웃 같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게 참 나는 이런 데 이래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나가면 인사하고 또 좀 즐겁게 있기도 하고 이러는 거.
나는 그런 거 참 좋아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좀 그런 게 어렵지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자식들이 똑같이 같이 크거든요.
이렇게 집이 가니까 한 세대가 그대로,
그대로 같이 마을강 같이.
서로 알고 지내고 한 세대가 같이 가는 기라.”

이말순

“잘은 안 살아도 잘은 안 살아도 행복하구만.
지금은 행복하구만.
우리 공부도 못하고 이래가 부모 재산도 못라고
우리 노력해가 살았는데
뭐 이 정도 살다가 죽으면 뭐 지금 죽을 때까지 건강만 하면
이 정도 건강만 해가 죽으면 뭐
자식도 쾌안코 우리도 쾌안코 쾌안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큰돈은 없어도 행복합니다.”







복현동의 봄

정화자 할머니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

내 고향은 저 멀리 남쪽의 끝, 바닷마을 해남이다. 봄이면 새색시 같은 살구꽃이, 여름이면 볼끈 권 아이 주먹 같은 마늘꽃이 피는 동네. 남쪽 바다가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다. 그 해가 1941년. 나라 없는 설움이 극에 달한 때였다. 광복되기 4년 전이었으니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향인 땅 끝에도 일본의 수탈은 심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라 없는 설움을 겪던 시절을 지나 광복을 맞이하고 다시 살만하다 싶던 때 한국전쟁을 겪었다. 81년 나의 삶은 나의 나라를 닮아있다. 굽이굽이 굴곡지고 눈물과 웃음이 섞여 있는 한의 시간. 그럼에도 나는 이 땅에서 그 시간을 잘 견뎌왔다.

삶이 매번 굽이 친 것은 아니다. 신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니까. 나에게도 햇살 같던 때가 있었다. 시린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물을 담뿍 먹고 핀 살구꽃처럼, 이른 봄날 짝을 띄워 여름 햇살 가득 머금고서 따뜻한 색을 빛내는 마늘꽃처럼. 나에게도 그런 푸른 시절이 있었다.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청춘을 시작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 여느 집 규수처럼 나도 그 시절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산 속이 아닌 나와 남편이 함께 만든 우산. 진짜 가족을 꾸리게 됐다.

“전라도. 전라도 해남서 살다가 목포에서 살다가...”

평생을 살 것 같던 고향을 떠났다. 낯선 타지에서의 짧은 생활이 이어졌지만 긴 정착이 되진 못했다. 나와 남편은 전라도를 넘어 경상도로 오게 됐다. 그 시절 나의 결혼은 남들보다 조금 늦됐다. 스물여섯에 결혼한 후 남편과 살다가 대구로 향했다. 지금은 KTX며 비행기며 하루 안에 전국을 오갈 수 있지만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행길. 제대로 포장된 도로가 없어서 덜컹거리는 길을 시외버스가 달리면 커다란 돌이 차창으로 튀어 올랐다. 해남에서 대구행은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먼 길. 나와 남편은 목포에서 하룻밤 자고 또 다시 이동해야 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사 올 때는 아마 설레지 않았을까. 둘이서 여행을 떠나듯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기차에 올랐다. 그렇게 돌고 돌아 간 길. 나의 또 다른 고향이 된 대구다. 그때는 전라도가 고향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남편은 오자마자 주소지부터 옮겼다.

**“여기로 다 옮겨 버렸어. 우리 아저씨가.
전신에 호적하고 다 옮겨 버렸어.”**

대구에는 시누이가 먼저 와서 살고 있었다. 말도 낯설고, 땅도 낯설고, 사람도 낯선 곳.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도 고향을 벗어난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이었다. 믿을 때라곤 여기서 터를 잡은 시누이 하나. 시누이가 먼저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대구를 선택했다. 일가친척 아무도 없는 낯선 타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이 놓였다.

**“형제간에 의지하고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내 나름대로 가는 거는 몰라도 형제를 늘 의지하고
어디 가는 거는 안 된다. 내가 그거를 맹세를 해버렸다.”**

살림살이를 전부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덜컥 해버렸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도시인지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도와 도를 넘어 새로운 터를 잡는다는 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였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교통도,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는 시절, 발품도 팔 수 없는 나와 남편에게는 그저 마음 결붙이인 시누이가 제일 든든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남편이 일을 나가고 나면 모든 것은 혼자 감당해야 했다. 시누이가 도와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어디 한 곳 찾아가는 것도 어려웠을 때. 길을 몰라도, 길을 잃어버려도, 길을 찾아도 마음이 참 헛헛하던 때가 그때였다. 그리고 보면 시누이도 고향에서 떠나와 타향살이 하는 처지. 나나 시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힘들 때가 그때였다. 고향이라는 게, 아는 곳이라는 게, 비밀 언덕이 있다는 게 이래서 무섭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깊이에서 차이가 난다. 든든하고 헛헛하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여기 침 와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지고 애무쎄.
또 우리 아저씨 경대 일하는데
밤 싸깃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길 잃어버리고...”**

대구에서의 첫 집은 동구 신암동이였다. 그때 막 대구 파티마병원이 들어설 때였다. 주변에 작은 건물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논과 밭이였다. 그 뒤편 동네는 집집이 서로 맞닿은 판자 집이였다. 나와 남편의 첫 집은 은하아파트 건너 언덕 있는 데였다. 하지만 곧장 그 집도 비워줘야 했다. 판자촌 철거가 결정되면서였다. 낯선 땅에서 겨우 잡은 집을 두고 우리는 새 집을 찾았다. 그게 바로 지금의 복현동이다. 복현동은 내가 선택한 동네다. 여기서 사귀게 된 친구가 복현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복현동 살이가 시작됐다.

**“우리 아저씨는 신암등으로 가자하는데 나는 또 여기에 친구가 있었어.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어.”**

남편은 미장일을 했다. 집을 지으면 벽이나 천장, 바닥에 흙이나 시멘트 등을 발랐다. 집 짓는 기술을 가진 기술 장인이었다. 동네 재개발로 인해 작은 주택부터 소형 아파트까지 남편의 기술은 다양한 곳에 필요했다. 건수가 적지 않으니 당시 직원들 여럿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 대금 수금이었다. 양심 곱고 순한 남편은 ‘돈 달라’는 소리를 못했다. 살면서 남편한테 싫은 소리, 굳은 소리 한 마디를 못하는 양반이었다. 결국 집을 지어 주고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잦아졌다.

**“내가 여기 전라도서 참 여기 대구 와가지고
좋은 꼴은 하나도 못 보고 노다지 이렇게 서러운 꼴만 보고 살았다.”**

실컷 일해주고 받지를 못하니 어찌겠는가. 결국 내가 곳곳을 찾아다니며 수금하러 다녔다. 우리 집 생계도 문제였지만 함께 일한 직원들 생계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다.

**“내는 돈 못 써도 넘은 월급은 해줘야 될 거 아이가.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으니까..
연탄 쌀 외상 갖다 먹어도 밑에 사람들은 월급 해주라 했어.”**

미장은 사시사철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한 여름, 딱 한 철만 일할 수 있었다.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처음에는 남편과 나 달랑 두 식구뿐이었지만 새 식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들 하나에 딸 셋.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려면 일 할 손이 하나 더 필요했다.

“잠 한 번 자는 것이 소원이었어.”

가을이면 나는 등에 하나, 손에 하나 아이들을 이리저리 들쳐 업고 걸으며 화원까지 갔다. 추수하고 남은 알곡을 주우러 다녔다. 힘은 들지만 꽤 많은 양의 쌀을 주워 올 수 있었다. 몸은 힘들어도 여섯 식구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였다. 하지만 남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약 16km 되는 길. 요즘은 차로 24분이면 도착하지만 그때는 한 번 가는데 4시간은 잡아야 했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그 먼 길을 아이와 함께 가야 했다. 하루 종일 주운 벼씨를 들고 들어오면 남편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머리에 이고 온 보따리는 본 척도 하지 않고 쓱 들어가 버렸다.



“그거 하러 갔다고 믿다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래 가지고 나락 한 가마에 반도 하고 그랬다.”

어느 날은 공사장에서 일했다. 어느 날은 경북대학교 안에서도 일했다. 나는 나를 찾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향했다. 편한 일, 힘든 일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다. 학교 건물 공사를 할 때면 인부들 일을 도와줬다. 학교 건물 공사를 하지 않을 때면 학교 곳곳에 자라난 풀을 뽑기도 했다. 공사장이며 학교며 바깥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일의 시작이었다. 자식 입에 풀칠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일을 마치거나, 일이 없을 때는 때때로 구리를 주우러 다녔다. 논밭을 막 갈아엎어 새 집을 짓고 새 건물을 올리던 때였다. 잘 살아 보기 위한 사람들의 열기는 곳곳의 개발로 이어졌다. 덕분에 나는 공사장 곳곳에 널브러진 전기선 동가리를 주워 모을 수 있었다. 꽤 쓸쓸한 구리 수집은 동네에서 암암리에 하는 소일거리였다. 그렇게 모은 구리는 그대로 되파는 게 아니다. 집에서 작은 손질이 필요하다. 모든 일을 마치고 가족이 잠자리에 든 저녁 시간. 모아둔 전기선을 꺼내 손질하는 시간이다. 손질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구리선을 감싼 피복 벗기기. 하지만 막상 전기선 피복을 벗겨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칼이든 불이든 이용해야 하는데 불보다는 칼로 해야 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었다. 불에 그을려 피복을 벗겨낼 경우 제값 받기가 힘들었다. 나는 칼로 살짝 살짝 선을 뚫은 피복을 까내려 갔다. 질긴 피복에 둘러싸인 구리의 몸체가 노랗게 드러났다. 노란 구리 색을 보고 있자면 손가락이 아픈 것도 잊게 된다. 그렇게 일일이 손으로 벗겨내 구리를 봉고차 짐칸에 실었다. 꽤나 많이 벌었어. 지금 돈으로 한 35만원 될 거야.

“우에 살았던 그래도 널 한테 굳은 소리 안 듣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맞다. 평생 정 붙이지 못할 것 같던 동네에 정이 들었다. 사람 사는 건 매한가지. 좁은 집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누구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사이가 됐다. 대문도 닫지 않고 살았다. 집과 집이 너무 다닥다닥 가깝게 이어져서 일일이 못 잠그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온 동네 사람이 친하게 지내니 대문 걸어 잠글 새가 없었다. 문을 열어두면 아무나 들어와 나나 남편을 찾았다. 그렇게 오면 안사람들끼리는 수다떨기 바빴고 바깥사람들끼리는 술 한 잔 기울이기 바빴다. 이웃들 발걸음이 서로 문턱 닳을 정도이니 굳이 닫을 필요가 없었다. 복현동에서 우리 집은 비울 때만 아니면 항상 열려있는 집이었다.

**“아무라도 들어오면 되는 기라. 문 안 잠그고 놔뒀버리니까는.
그러니까 뭐 부르면 있고, 나가면 밖에 나가고.
대문 잠가놓으면 인자 나갔구나 싶고 그랬어.
거기는 그래도 친구들이 많았잖아.”**

서로 나누기 바쁜 동네였다. 뭐라도 있으면 나눴다. 콩 한 쪽도 나눠먹는다더니 복현동 동네가 그랬다. 감자라도 하나 삶으면 서로 불러 나눠먹고 어느 집에서 우리 국수 해먹자고 하면 그 날이 잔칫날이다. 어디 그뿐이라 커피 한 잔 하러 오라 그러면 또 모여서 믹스 커피 한 잔에 고단함을 나눴다. 어느 날은 겻돈으로 한복을 맞춰 입었다.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열두 명이 맞춰 입고서 마을 잔치에 갔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어느 집에 아들, 딸 치우는 날이면 어김없이 음식 싸들고 다 함께 가서 내 집안일처럼 도왔다.

**“갯돈 가지고 그래 했어. 갯돈 많이 모아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한복 해가 입자 그래 돼가지고. 그래도 몇 번 입었다.
그래도 잔치할 때 모두. 똑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대.”**

그렇게 옷을 일만 남은 줄 알았다. 아들 하나, 딸 셋 자식복도 이만하면 됐고 부유하진 않지만 먹고 살기도 좋고. 마음까지 정착했으니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다. 무슨 바쁜 일이 있었을까? 아프던 남편은 그 길로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호강 한 번 못해보고 눈을 감았다. 그때 내 나이 마흔 여덟이었다. 아프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일찍 내 곁을 떠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떠날 때 까지 내 걱정을 했던 사람. 남편은 병석에 누워서도 내 걱정, 아이들 걱정 뿐이었다. ‘당신 애들 넷 데리고 어떻게 살겠나? 내가 못 하겠는데 애들 데리고 우예 살겠노.’ 나는 아직도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저녁이면 우리 부부는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내가 칠성시장에서 사온 닭발과 닭똥집으로 양념해서 구워주면 그렇게 좋아했었다. 그 사람 좋아하던 음식, 그 사람 누웠던 자리, 그 사람 조곤하던 목소리 어느 것 하나 잊은 게 없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온 세월이, 힘들어도 이 악물고 버틴 세월이 어느새 이만큼 됐다. 내 나이 팔십 하나.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그때 그대로 내 가슴에 맺혀있다.

**“우리 아저씨 돌아가실 때. 집은 좁잖아.
그래가지고 골목에서 비닐을 쳐놓고, 비도 그때 억수로 왔다.
8월 달이 되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사도 8월이라고 같이 지낸다니까.
그러니까 비닐 깔아가 쳐놓고 평상 거기다 놔두고
거기서 손님들 받고 그랬어. 그 기억은 어디다가 다 얘기 못 하지.”**

하루아침에 남편이라는 큰 우산이 사라진 나는 그 길로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우산은 사라졌지만 어머니라는 우산이 남아 있었다. 슬픔을 토해낼 시간 따윈 나에게 없었다.

**“남자 의지가 얼마나 큰데.
저기 저 광명아파트로 일하러 댕기고 했다.
내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다 살아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 공납금이 있었다. 대학까진 못 시켜도 고등학교까지는 시켜야 했다. 아이들 크는 재미 보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는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폭 자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일하고 또 일했다. 아이들 도시락 네 개, 하루 종일 일하러 가는 내 도시락 한 개.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도시락을 싸면 곧장 나가야 했다. 그렇게 일하고 나서 들어오면 늦은 밤. 밀린 집안일이며 빨래며 다음날 반찬이며 엄마로서의 일이 남아 있었다. 쓰러지고 싶은 순간, 평평 울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참았다. 아이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틸 수 있었다.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 그래가 있으면은
생전 가도 아저씨 못 잊어버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래가 있어가 있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나의 세월도 지났다. 혼자 산 세월 어찌 말로 다할까.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그저 삶이 고됐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선. 그 시선 안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내기란 참 어려웠다. 그래도 나는 해냈다. 네 명의 아이 모두 잘 커주었고 시집 장가가서 나름의 삶을 잘 살고 있다. 그만하면 말년 복은 나쁘지 않은 셈이라 생각한다. 아이들 장성해서 각자 삶을 찾아갔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 홀로 나이가 들고 나니 곁에 남는 이는 동네에서 함께 울고 웃고 했던 친구들이었다.

요즘도 나는 나누는 재미로 산다. 며느리가 가게에서 남은 기름을 가져다주면 양젓물에 피준, 옥시크린을 넣고 수제 비누를 만든다. 내가 만든 비누는 동네에서도 인기가 좋다. 사람들이 써보고 좋다하니 그 재미로 만들어서 온 동네에 쪽 돌린다.

“집에가 있을 여가도 없어. 내 혼자 있으니까.

저녁에도 밥 해놓고 오라 하면 가고.

오뎅하고 파하고 막 넣어 가지고 끓여가지고 해놓으면 그래 좋아해.

또 국수에다가 그거 콩가루 해가지고 오이 좀 썰어가지고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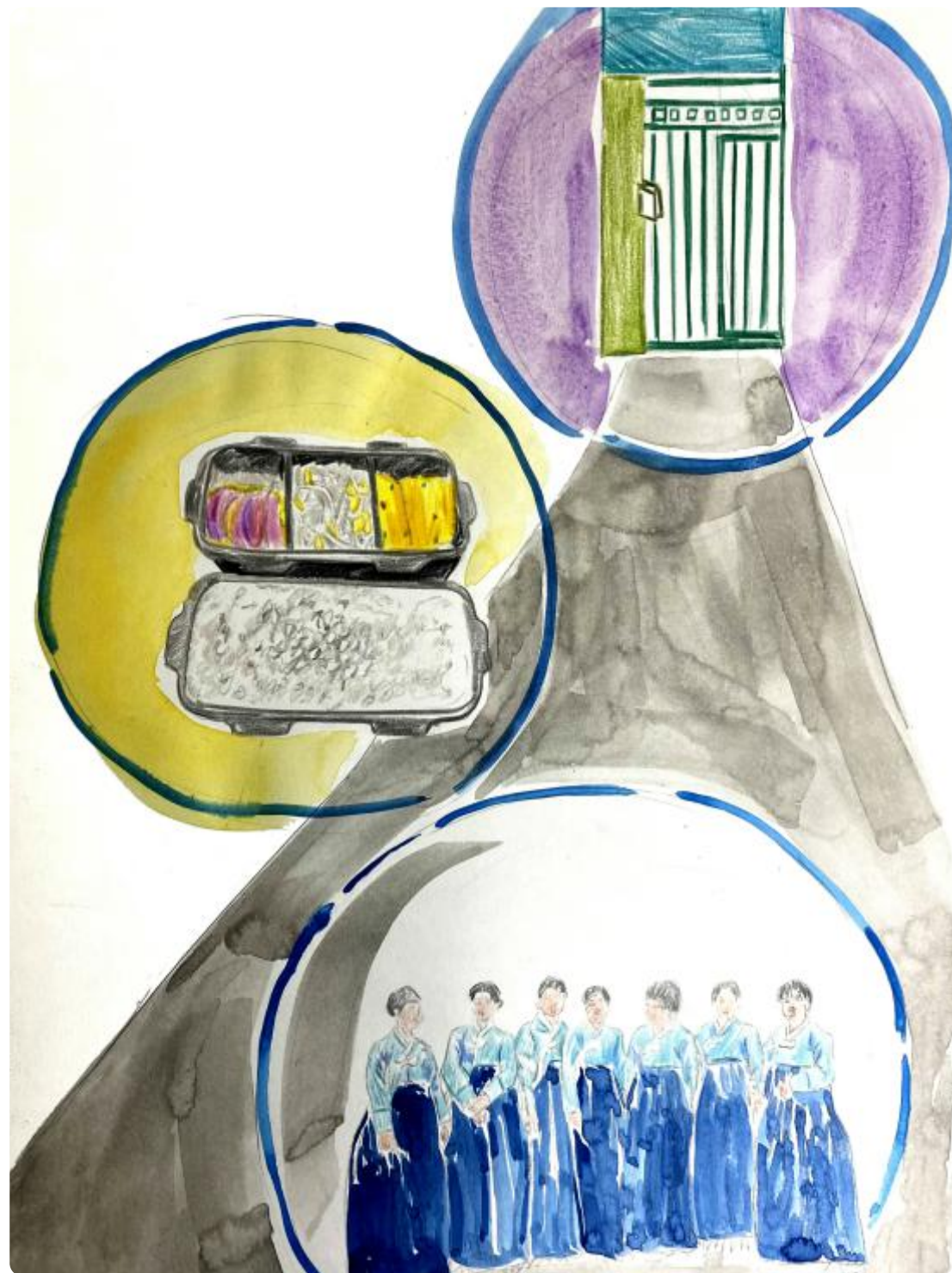
노년의 고향 같은 곳이 바로 복현동이다. 어린 시절 삶은 해남에 남겨뒀지만 내 평생의 삶은 복현동에 남았다. 삶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자리를 비워줘야 했다. 2020년 9월 26일 나는 정든 내 동네를 뒤로 하고 떠났다. 지금 이사 온 집은 깨끗하고 생활하기 편리하지만 복현동에서의 즐거움은 없다. 경로당에서 여럿이 먹던 재미, 내 음식 솜씨에 맛있다고 먹던 친구들, 김장철이면 함께 했던 품앗이까지. 이제 모두 옛날일이 되어 버렸다.



“커피도 혼자 먹으게 맛없어. 뭐라도 여럿이 먹고 여럿이 해야 되지.
김장도 못한다. 여기서는. 거기서는 내 해먹었는데.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정을 내려 하면 서로가 정을 내야 되는데
혼자만 해갖고는 절대 정이 안난데이.”

남편과 처음 이사 왔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함께 사랑했던 시간, 개구쟁이 아이들 장난에 웃었던 시간. 수많은 시간이 녹아든 집, 복현동. 수십 년을 산 그 집에는 남편과 나의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은 남편 대신이기도 했다. 우리 가족을 끝까지 보듬어 줬으니 고마울 수밖에. 그 울타리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나도 잘 살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아쉬움과 미련뿐. 꽃동네, 새 동네로 바뀐다 하니 기대는 되지만 이 그리움만은 감출 수가 없다. 나의 두 번째 고향 복현동에는 그때의 그 추억과 웃음이 자리할까? 그때 그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을까? 나는 복현동에 어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 꽃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림습니다. ♪









전미희

복현타작 수강생 作

세월무상

제 이름은 대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견디고 살아온
긴 세월인데
제 몸에 붙은 네모난 이녀석에
간단히 적힌 글 대로
제 처지가
이제 그러합니다

재개발

부모님 손잡고
어린시절의 나는
전쟁 피해 떠나서 왔었다네

피난민촌
재개발

이제 나이 먹어 늙은 나는
오랜 세월 함께 늙은 이 곳을
쉬이 떠날 수가 없다네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어디로
가야하나

근근히 살아온
나의 긴세월은
또다시 전쟁을 만났다네

몸도 마음도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여
깊은 시름이
바람에 흔들리는 열린 문짝처럼
덜컹거린다네





벽해상전

피난민촌 이전 이 땅은
온갖 풀들의 터전이었던 걸까?
바닷물이 저만치 빠져나간 자리
호시탐탐 회복의 기회를 엿보던 풀들이
드려 뿔나무밭을 다시금 일궈냈노라
골목마다 하늘 위로 손을 뻗으며
만세만세만세



고양이통장님

사람들로
복적이던 피란민촌
세월따라
날아빠진 허름한집
위험해요
제발개발 하입시더
자의타의
새집찾아 나간사람
남은몇집
집구하는 중입니다

잡초수북 쌓여가는
골목길에
얼굴낯선 손님와서
기웃대니

고양이 통장님이
어서오이소
인사를
배꼽





















북현라작 3

우리마을 이야기

길잡이

현숙경

진행

최서현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글

권영세 유지양 전미희

사진

현숙경 박재현 전미희 최서현

그림

이승희

디자인

올타쿠나 대동출판인쇄

인쇄

대동출판인쇄

펴낸곳

올타쿠나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대구광역시북구
BUK-GU DISTRICT, DAEGU CITY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 책자는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SBN 879-11-04011-0-1